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LILY & DUNKIN
가제 : 릴리와 던킨
저자 : Donna Gephart
출판사: Delacorte Pr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8학년 개학 직전, 인생 제 2막을 열기로 결심한 특별한 두 아이의 계획이 시작된다.

개학이 6일 밖에 남지 않은 여름, 이제 이름을 '릴리 조'로 바꾸기로 혼자 결심한 티모시는 부모님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엄마 옷들이 잔뜩 걸린 붙박이장으로 얼른 다가갔다. 8학년 새 학기가 시작될 첫 날, 계획한 일을 실천하려면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잔잔한 흰 백합꽃이 수없이 프린트된 붉은색 원피스. 엄마와 함께 쇼핑을 가서 그 옷을 함께 골랐던 날을 떠올리며, 티모시는 조심스레 잠옷을 벗고 드레스를 몸에 걸쳐본다. 전신 거울을 한 번 보고, 가슴팍이 허전하다는 생각에 엄마 브래지어를 집어 든다. 양쪽 가슴에 양말을 구겨 넣어 볼륨을 만든 후 다시 거울을 보니, 꽤나 흡족하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과연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해해줄까? 티모시는 인터넷 검색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욕하고 싫어한다. 하지만 연습해야 한다. 아직 한참 어리던 시절, 티모시는 여동생 새라의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있다.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도 껄껄 웃었다. 그 때만 해도, 그렇게 한바탕 웃고 말 일이었는데, 멍하니 거울을 보다 마당에 아버지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런데 릴리 조는 그 차림 그대로 뛰어나간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던 아버지는 몸을 돌려 릴리 조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란다. "티모시!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규칙 잊었어?" 여자 옷을 꼭 입고 싶으면 집안에서만 입으라는 아버지의 규칙을 지금 티모시가 대놓고 어긴 것이다. 길 저쪽에서 다가오는 소년이 보이자, 아버지는 남들이 아들의 이 모습을 볼까 두려운 나머지 한껏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댔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 하지만 오늘 제대로 연습하기로 결심한 티모시는, 그 소년이 가까이 올 때까지,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할 때까지 잔뜩 화가 난 아버지 앞에 그대로 서 있는다. 마침내 가까이 다가온 귀여운 외모의 소년, 도넛 상자를 손에 든 그 아이는 티모시를 향해 꾸밈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날 여자애로 생각한 거야!' 그 눈빛에서, 티모시는 분명히 그 의미를 읽었다.

남들과 다른 외모,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싸움

티모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소년. 이제 8학년을 앞둔 티모시는 이제 그 이름을 버리고 릴리 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굳게 결심한다. 원치 않았던 사춘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에 따라 남성호르몬이 마구 분비되기 시작하면 티모시로선 생각하기도 싫은 형태로 신체가 바뀔 것이다. 티모시에겐 절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티모시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서 호르몬 차단제를 맞고 2차 성징을 막기로 계획을 세운다.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이유는 그것이 전부였다. 이 운명의 한 해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티모시는 일생일대의 친구를 만난다. 바로 도넛 상자를 들고 지나가던 소년이었다.

뉴저지에서 13년을 살다가 무더운 플로리다로 이사온 노버트. 워낙 도넛을 좋아해서 '던킨'이라 불리는 노버트는 개학 6일 전, 어느 집 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소녀 같은 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다. 노버트에게도 아주 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광속으로 떠돌아다니는 순간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다. 미친 듯이 날뛰는 그 생각들을 멈추고 싶어서 쌩쌩 달리는 차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까지 솟구친다. 의사들은 노버트에게 조울증이라고도 불리는 '양극성 장애'라는 병명을 선사했고, 이후 노버트는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새 학기부터 노버트 역시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누구보다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노버트는 조울증 약이 농구 실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아무도 모르게 약을 끊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새 친구가 된 특별한 소녀, 릴리 조는 그런 노버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준다.

일반인들과 다른 존재들, 주변 사람들 심지어 부모님까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두 아이가 우연히 같은 학교에서 만나 진한 우정을 키우기 시작한다. 남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감당해야 하는 두 아이의 무거운 짐과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저자 소개>

돈나 게브하르트(Donna Gephart)는 아동 도서를 쓰면서 각급 학교, 도서 축제, 도서관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DEATH BY TOILET PAPER』, 『OLIVIA BEAN, TRIVIA QUEEN』, 『HOW TO SURVIVE MIDDLE SCHOOL』 등의 소설을 발표했다.

제목 : THE MEMORY WALL
가제 : 기억의 벽
저자 : Lev AC Rosen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6년 가을
분량 : -
장르 : YA 소설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어버린 엄마와 헤어져야 하는 열두 살 소년, 버티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가 '선라이즈 하우스'에 들어가는 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무슨 호텔 예약이라도 하는 것처럼, 몇 주 전 그 요양원의 '체크인 날짜'를 정할 때만 해도 닉은 하필 그 날짜가 자신이 가장 즐겨 하는 비디오 게임 '웰홀'의 새 버전이 출시되는 그 날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중에야 알고 서둘러 주문을 해놓았더니, 엄마가 집을 떠나는 날에 게임도 택배로 도착했다. 참 묘한 일이었다. 집안에 가득 내려 앉은 우울한 기운을 견딜 수 없었던 닉은 아빠가 화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게임 포장을 뜯었다. 표지에는 에레니아라는 가상 국가의 수도로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웰홀 시의 풍경이 세밀한 그래픽으로 가득 담겨 있다. 벌써 다섯 번째 버전이다. 네 번째 버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게임을 같이 하곤 했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으리란 생각에 닉은 울적해졌다.

2년 전, 부모님은 닉을 앉혀놓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엄마가 조기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이야기였다. 잠자코 듣고 있던 닉은 구글을 열심히 뒤져서 그게 어떤 병인지 알아보았다. 기억을 모두 잃고, 성격이 아주 고약하게 변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남이 목욕을 시켜줘야 한다는 정보들이 나왔다. 닉도 바보가 아닌지라 엄마가 최근 들어 부쩍 잘 잊어버리고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는 일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알츠하이머와는 거리가 멀다는 확신이 들었다. 구글에서 '알츠하이머 오진'으로 검색해보니, 최소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른 질병을 알츠하이머로 잘못 진단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닉은 더욱더 엄마가 멀쩡하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고 요양원에 입원시키려는 아버지와 크게 부딪혔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엄마는 알츠하이머가 아니라고 고집 부렸지만 소용 없었다. 큰 언쟁이 몇 번이나 오갔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엄마가 떠나야만 하는 날이 오고 만 것이다.

게임 속 가상의 도시 속에서 우연히 만난 캐릭터가 보내는 이상한 메시지…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

엄마의 증세가 겉으로 주체할 수 없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건 닉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도 집안에서가 아닌 닉의 학교에서 엄마가 주변 사람들을 다 놀라게 만들 만큼 감정을 제어하지 못

한 사건도 있었다. 그 일 이후로 닉은 학교에서 짓궂은 아이들로부터 쉼 없이 놀림을 당해야 했다. 이제는 누구도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닉은 엄마의 병이 오진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무도 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너를 위해 결정한 일이니 걱정 말고 즐겁게 지내라'는 엄마의 마지막 인사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닉은 슬픔과 괴로움, 지난 몇 달 동안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자신을 괴롭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 구입한 게임 속 세상에 빠져든다.

처음에는 닉이 원하던 대로, 게임을 할 때면 현실의 온갖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상 세계 속에서 닉은 '세버킨'이라는 회색 엘프의 캐릭터로 돌아다니며 웰홀에서 모험을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게임 세상 속에서 만난 '르네'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에게 닉은 묘한 감정을 느낀다. 전혀 낯설지 않은 기분, 르네는 엄마가 분명했다. 게임 속에서, 르네는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닉이 어떻게 해야 잘못된 진단을 바로잡아 자신을 구해낼 수 있는지 자꾸만 힌트를 던지는 것 같았다. 닉이 게임 속에서 만난 르네가 엄마라고 확신하기 시작하자,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은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고 단정지으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닉이 느낀 확신은 과연 환상일 뿐일까? 엄마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말대로 그것조차 다 상상이고 착각일 뿐일까?

닉과 닉의 게임 캐릭터 세버킨의 시각을 오가며 현실 세상과 가상 세계의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독일 신화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얽힌 이야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아버지가 흑인이라 인종 차별까지 견뎌야 하는 닉의 현실이 게임 공간이라는 특별한 가상의 세계와 동시에 그려지는 독특한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브 AC 로센(LEV AC ROSEN)은 오벌린 대학에서 글쓰기로 예술 석사를 취득했다. 아마존에서 '이달의 우수 도서'로 선정된 『All Men of Genius』과 단편 소설 『Painting』을 비롯해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그 외 <USA 투데이> 등 간행물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